

갑신의제개혁(1884년) 이전 일본 파견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의 복식 및 복식관

이 경 미[†]

서울대학교 박물관

The Costume and the thought to Costume of the Ambassador Extraordinary(修信使) and the Inspectors(朝士視察團) Detached to Japan before the Reform of Dress Regulation in 1884(甲申衣制改革)

Kyung-Mee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접수일(2008년 5월 9일), 수정일(2008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2008년 11월 13일)

Abstract

The reform of dress regulation in Kapshin(甲申衣制改革; 1884) was the first dress renovation in 8 years after Chosun's port opening in 1876, and the key contents of that reform was the simplification of the formal dress and private dress. The reform in the culture of the traditional costume should require some kind of special experience because that culture had been regarded as the precious symbol of the Confucian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the reform" and who proposed "that reform", by contemplating the costume and the thought of costume of the ambassador extraordinary(修信使) and the Inspectors detached to Japan(朝士視察團) who experienced new costume system of Japan sent by Chosun Dynasty. For this study, historical documents such as 'Sillok(實錄)', a sort of report(『修信使記錄』, 『聞見事件』) were reviewed and the evidential photos in Japan were analyzed.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im Kisu(金綺秀, Susinsa) in 1876 and Kim Hongjip(金弘集, Susinsa) in 1880 wore the traditional costume of Chosun in Japan, and described the westernized Japanese costume in view of traditional costume culture. Second, the inspectors detached to Japan in 1881 showed the same attitude to the Japanese costume as the previous Susinsas had done. Third, Park Younghyo(朴泳孝), who was a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特命全權大使) in 1882, experienced western style in Japan and played an positive diplomatic activities with western nations. It could be guessed that those changes in the attitudes of the diplomats might have the relationship with the change of Chosun, which began a treaty of amity between western nations after 1882. Afterwards, Chosun seems to have decided to reform the system of traditional costume into the simplified one in 1884, proposed by the diplomats who experienced foreign culture abroad including Park Younghyo(朴泳孝) and the mutual agreement in Chosun Government.

Key words: The reform of dress regulation in Kapshin(甲申衣制改革; 1884), Ambassador extraordinary(修信使), Inspectors (朝士視察團), Park Younghyo(朴泳孝), The thought of costume(服飾觀); 갑신의제개혁, 수신사, 조사시찰단, 박영효, 복식관

[†]Corresponding author

E-mail: evangelline@hanmail.net

I. 서 론

조선시대에 전통복식은 유사이래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생활문화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중국에서 청이 들어선 조선후기에는 유교문화를 유일하게 구현하고 있는 조선이야말로 문화 중 주국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중화주의를 성립시켰고(정옥자, 1998), 의관문물은 그 대표적인 표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을 계기로 전통복식체제와는 다른 서양복식에 대한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전통복식체제를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개항 후 8년이 지난 1884년 발표하게 되는 갑신 의제개혁은 새로운 복식체제를 모색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식사의 흐름상 중요한 변곡점에 해당하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관복을 흑단령으로, 사복을 착수의(窄袖衣)로 간소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후기 복식사와의 연속성 측면에서 갑신 의제개혁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갑신 의제개혁의 제정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적고 있는 황현의 『梅泉野錄』에는 ‘1884년 6월, 복식제도를 개정하니 公私나 貴賤을 막론하고 모두 신식으로 할 것을 반포했다. 이 때 박영효 등이 서양제도를 흠모한 나머지 임금에게 바꿀 것을 권하되, 한결같이 간편함을 좇는 것이 부강의 급선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민영익 또한 마침 청나라로부터 돌아와 함께 의논하여 합의를 보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개혁의 제안자가 ‘박영효 등’이고 이를 의논하고 합의한 사람이 ‘민영익’이라는 단서를 제공하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제개혁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1972년 3월 14일자 조선일보 “세상 달라졌다”에서 서술하고 있는 “實錄, 西遊見聞, 高宗時代史 등 한말의 각종 자료에 의하면 최초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1881년 신사유람단 또는 수신사 일원으로 일본에 갔었던 개화파 정객들인 김옥균, 서광범, 유길준, 윤치호 등이고 이들은 일본에서 단발 양복 차림의 하이칼라 신사가 되어 귀국 후 복식혁명을 일으킬 것을 다짐했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급진 개화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하고 있고 이는 지금까지 복식사 개설서 및 연

구서에서 인용되어 왔다(김진식, 1990; 유희경, 1977). 그러나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기사가 구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연도, 내용의 일부분, 착용의도 등이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담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정치인들이 해외에서 양복 관련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고 조선의 복제개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크지만 조선의 의관문물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버리고 아직 정부로부터 허락되지 않은 단발과 양복 차림을 한다는 것과 이들의 다짐만으로 복제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 역시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술의 진위를 밝히고 갑신 의제개혁의 배경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개항 이후 갑신 의제개혁 이전까지 일본 파견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이 착용한 복식과 서양화된 일본 복식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구체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갑신 의제개혁의 배경, 제안자, 조선 조정 내에서의 논의내용 등이 자료의 부족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의제개혁 이전에 이루어지는 초기 양복 경험자들의 생각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제개혁 발표 이후 이를 둘러싼 논의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1884년 이전 일본에 파견되는 몇 차례의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이 남긴 문헌과 그들이 일본에서 찍은 사진, 신문의 일러스트 등을 분석 자료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1876년 수신사 김기수, 1880년 수신사 김홍집의 복식 및 복식관

1. 1876년 수신사 김기수의 복식 및 복식관

조선은 일본에 개항한 직후인 1876년 4월에서 5월(음력)에 걸쳐 예조참의(禮曹參議) 김기수를 수신사로 하여 일본에 처음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김기수의 수신사 복명기록으로는 『日東記遊』, 『修信使日記 卷1』이 있다.

먼저 수신사 김기수 일행의 복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76년(명치9) 5월 30일(양력) 일본의 신문들에는 조선 수신사 일행의 入京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나와 있다. 『東京曙』에서는 수신사에 대해서 “검은색 笠과 絹나 紗로 만든 자색 袍를 입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고, 『東京日日』에서는 “검은색 관과

검은색 포를 입었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入京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 1>의 일러스트에도 갓으로 보이는 검은색 쓰개와 검은색 포로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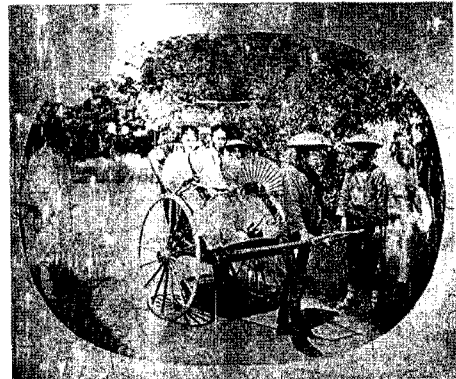
한편, 실내 사진관에서 촬영한 <그림 2>에서는 사방관에 학창의를 입고 있고 <그림 3>과 같이 인력거를 타고 있는 수행원의 외출 상황과 <그림 4>의 숙소에서도 역시 편복을 입고 있다. 『修信使日記卷1』의 入侍禮에는 일왕을 알현하기 위한 행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關門 밖에서 흑단령을 입고 숙배례를 한 후 입시하라는 명이 있으면 ‘흑단령’으로 갈아입는 조선의 行禮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왕을 만나는 장소에서는 흑단령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왕을 알현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흑단령의 관복을 착용하고 그 외는 사복으로서 조선의 편복관과 편복포를 착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日東記游』의 일본의 외무大丞과 의복제도 및 행례에 관하여 논하는 기록을 통해 그의 복식관을 살펴보면, 일본인의 의복이 上衣下裳의 여유로운 옷이 아닌 것에 놀람을 표현하였고 이에 대해 大丞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답하고 조 무령왕 고사를 예로 들면서 조선의 의제 역시 수시로 변하지 않는다고 되문고 있다. 이에 김기수는 ‘조선은 明의 의복제도를 따르시오 백년에 이르러 상하 귀천이 하나로 같은 규정을 따르고 아직 변한 바가 없었다’고 답함으로써 전통적인 조선후기의 복식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복식 변화와 그 모습에 대해 『日東記游』 ‘行禮 衣服附十一則’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김기수, 1876 이후/1971).

의관은 모두 洋製라고 한다. 그들의 公服은 바지가 몸에 착 붙어서 조금도 여유가 없으므로 일어서면 뒤의 臂膊와 앞의 外脛 있는 곳을 만져 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다. 저고리도 팔꿈치



<그림 1> 入京하는 김기수 일행
자료출처: 근대의교의 발자취, p. 23.



<그림 3> 인력거를 탄 수신사 일행
자료출처: 幕末明治期寫眞資料目錄1, p. 386.



<그림 2> 김기수 사진
자료출처: 한국사진역사전 도록, p. 36.



<그림 4> 숙소에서 김기수 일행
자료출처: 幕末明治期寫眞資料目錄1, p. 386.

에서 어깨까지는 바지의 다리 부분과 같고, 몸 가까이 붙은 데는 넓고 여유가 있어 마치 스님(僧)의 저고리와 같다. 옷감은 黼 黻을 많이 쓰지만, 백색과 흑백을 섞어서 쓰기도 한다. 바느질도 역시 가로 세로를 어긋나게 하고, 조각조각을 서로 붙이며, 느슨하게 벌어진 틈(주머니)이 있어서 여기에다 물건을 넣어 둔다... 신은 검은색 칠을 한 가죽을 신는데 앞은 돼지 주둥이처럼 뾰족하고, 뒤는 나막신처럼 굽이 있다. 신기는 버선과 같이 하는데 복사뼈를 훨씬 올라가고, 벗기는 신처럼 하는데 땅에 놓아둔다. 그러나 복사뼈에 너무 끼기 때문에 벗고 신는데 모두 힘이 드니, 중국 여자들의 전족과 같이 더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모자는 이마가 둥글고 바로 두뇌를 누른다. 둘레에는 簾이 있어서 겨우 발을 가리울 만하다.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모두 모전(黻)을 사용한다... 그들의 이른바 品服이라는 것은, 저고리는 금 비단조각(金綉)로 만드는데 그 조각의 많고 적음이 품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다. 모자는 퍼지지 않는 연잎(荷葉)과 같은데, 대개 貂皮를 쓰고 털은 매우 길다... 일없이 한가히 거처할 때는 천황 이하의 관원이 모두 그 옛날 제도의 衣裳을 입는데, 머리털을 모두 잘라 버렸으니 어떤 冠의 제도가 있는지 보지를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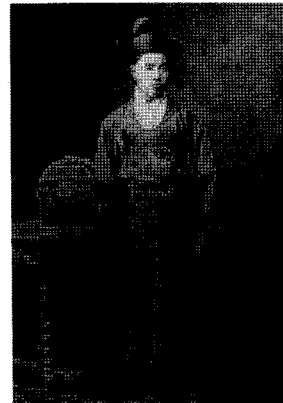
이를 보면 새롭게 제정된 서양식 복제(服制)를 공복(公服), 품복(品服)으로 지칭하면서 당시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양복의 상의, 바지, 모자, 신은 물론이고, 의료(衣料)와 구성법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양복 상의에 대해 바지와 같이 여유분이 적다는 것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통복식과 가장 다른 점으로 인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의복 재료로 검은색 전(黻)을 많이 쓴다는 것은 조선의 전통복식과는 달리 양모를 재료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성적 차이로 가로세로를 어긋나게 붙이고 주머니가 있다는 것은 길과 소매의 구성이나 주머니 부착 등이 전통복식과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부분임을 지적한 것이다. 새롭게 본 서양식 구두와 모자에 대해서 신기한 느낌과 함께 편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편하다’는 오랫동안 적응하여 ‘익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겪는 느낌이 아닌가 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여겨질 수 있는 이러한 느낌에 대해 개항 당시의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기수는 연거시에 구제(舊制)를 입는다는 것과 단발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쉬운 감정을 비쳤는데 이는 김기수가 일관되게 조선의 전통 의관에 대해 가진 자부심을 반영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1880년 수신사 金弘集의 복식 및 복식관

2차 수신사 김홍집은 세계대세를 살피기 위하여

1880년 6월부터 8월(음력)에 걸쳐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김홍집의 수신사 복명기록으로는 『修信使日記 卷2』가 있다. 그는 일본에서 머무르는 동안 <그림 5>의 사모를 쓰고 쌍학 흉배를 단 단령 차림의 사진을 남기고 있는데, 김기수의 사진과 마찬가지로 수신사 인장을 옆에 두고 사진을 찍고 있다.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행한 영국인 화가가 그린 삽화인 <그림 6>에는 갓을 쓰고 편복의 포류와 전복을 입은 수신사 일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두 자료를 통하여 김홍집도 공식적인 일정을 위해서는 사모 단령의 관복을 착용하고 사적인 일정에서는 편복을 착용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김홍집(1880년 이후/1971)의 『修信使日記 卷2』에서 일본의 의복제도에 대해 ‘근년에 국가 규칙으로 완전히 서양제를 따르고 있지만 구식의복도 역시 존재하여 비록 朝士이더라도 집에 있을 때는 옷을 갈아 입는다’고 적고 있다. 1880년(고종17) 8월 28일 실록과 『修信使日記 卷2』를 보면, 김홍집이 돌아오자 고종이



<그림 5> 수신사 김홍집
자료출처: 한국사진역사전 도록, p. 37.



<그림 6> 귀국하는 배 안에서 김홍집 일행
자료출처: 세밀한 일러스트와 회귀사진으로 본 근대 조선, p. 16.

일본의 행정, 외교, 교통, 풍속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 고종은 일본의 여러 가지 변화를 자세히 알고 싶어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김홍집의 일본 경험을 소상하게 묻고 있다. 이 중 복식에 관해서 고종은 의제개혁 후에도 풍속을 고치지 않고 舊服을 입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김홍집은 ‘그들 중에 글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못 가상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홍집 역시 김기수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복식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종은 스스로 복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나름의 정보수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III. 1881년 조사시찰단의 복식 및 복식관

1. 조사시찰단의 구성

조사시찰단(소위 ‘紳士遊覽團’)의 공식명칭은 ‘東萊府 暗行御史’로, 1881년 4월초부터 윤7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일본의 문물제도를 시찰하고자 파견되었다. 총인원 64명으로 구성된 조사시찰단은 姜文馨(1831~?), 金鏞元(1842~?), 閔種默(1835~1916), 朴定陽(1841~1904), 沈相學(1845~?), 魚允中(1848~1896), 嚴世永(1831~1899), 趙秉稷(1833~1901), 趙準永(1833~1886), 李元會(1827~?), 李鏞永(1835~1907), 洪英植(1855~1884)의 12명의 朝士, 27명의 隨員, 10명의 通事(통역관), 13명의 하인, 2명의 일본인 통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허동현, 1998a). 朝士 중 한 명인 이현영의 『日集略』의 奉書에는 마패와 함께 ‘일본의 조정논의와 시세 형편, 풍속과 인물, 수교와 통상을 시찰하고 別單으로 조용히 보고하라’는 어명이 적혀 있다. 이들의 파견은 고종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뢰한 시찰단은 아니었고, 이들의 움직임도 매우 조심스럽게 지시되어 동래부에 개별적으로 모인 다음 일본행 화륜선에 오르는 형식이었다. 이들 조사시찰단에는 복식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최초의 양복신사인 서광범은 속해 있지 않고,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최초의 일본 유학생인 유길준, 유정수, 윤치호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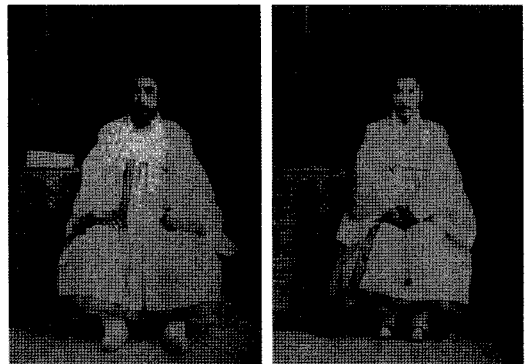
이들 조사자들에게는 일본의 실정 전반을 관찰 보고할 임무 외에 일본 정부의 각 성과 세관의 운영상황 그리고 육군의 조건 등에 관한 것 가운데 한 가지를 각자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임무수행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그것을 고종에게 올렸는데, 이들의 보고서는 크게 두 종류, ‘문견사건(聞見事件)’과 ‘시찰기(視察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복식에 관한 것은 ‘문견사건(聞見事件)’류에 서술되어 있다(허동현, 199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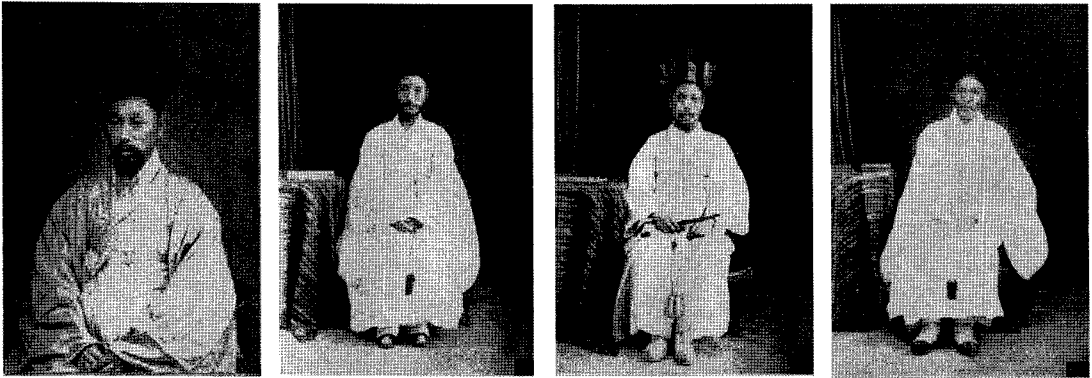
2. 조사시찰단의 복식 및 복식관

조사시찰단은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촬영된 몇 장의 사진을 남겼는데 이현영의 『日槎集略』에도 7월 3일(癸亥)에 ‘낮에, 寫眞局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엄령과 심령, 오위장도 동행하여 함께 찍었다. 사진국의 주인은 영목건운(領木攢雲)이었다’라고 적고 있어서 사진 오른쪽 하단에 붙어 있는 명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 중 두 명의 조사와 네 명의 수행조사 사진이 1998년 『한국사진역사전』에서 소개된 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당시 이들이 일본에서 착용한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의 朝士 엄세영과 이현영은 와룡관에 학창의를 입고 세조대를 띠고 있다. 또한 <그림 8>에서 수행조사 엄석주와 이필영은 와룡관을, 이종빈은 정자관을, 이상재는 사방관을 쓰고 있다. 포에 있어서는 소매가 넓거나 좁은 편복포에 세조대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모두 조선후기의 편복의 관과 포를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시찰단 일행은 조선정부에서 파견되긴 하였으나 일본정부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왕을 알현하는 일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차림을 주로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日槎集略』 5월 3일 ‘아침을 먹고 나서 제공들과



<그림 7> 조사 엄세영, 이현영 사진
자료출처: 한국사진사역사전 도록, p. 37.



<그림 8> 수행조사 엄석주, 이필영, 이종빈, 이상재
자료출처: 한국사진역사전 도록, pp. 38-39.

함께 도포를 입고 적판성(赤坂省) 밖 동구(東區)로 나가 문묘(文廟)로 향했다.’는 기록이 있어 문헌을 통해서도 편복 착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이 남긴 ‘문견사건(聞見事件)’을 살펴보면, 일본의 복식변화에 대한 관찰과 감상을 조금씩 남기고 있는데 조사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정양(1881/1999)은 ‘상투머리인 자는 명령에 의해 머리를 깎고 예전의 천한 노예 가운데 문신하는 것은 폐지하고 부녀자가 이를 검게 물들이는 것도 금지하였다. 버선이 없었지만 흙버선을 신고 이전에 뒤가 없던 짚신은 가죽구두로 바뀌고 군주에서 군병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양복을 모방하였다. 朝士는 영국 옷을 모방하고 그 색은 항상 검고 군병은 러시아 옷을 모방하여 그 색은 항상 희다. 서양 옷은 공복이 되고 옛 복식으로 사복을 한다.’라고 서술하였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단발령, 복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표방한 것인데 이와 같은 취지로 엄세영(1881/1999) 역시 ‘의복의 제는 오모(烏帽) 우직(羽織) 직수(直垂)등을 입는데 명하기를 모두 착수(窄袖) 단매(短袂)의 제도이고 단 공복에만 패도를 허용하였다. 군졸 무관으로부터 시작하여 5년 입신에 이르러 국주로부터 이하 내외 군민 모두 신복으로 변화하였다. 그 전년 이미 국중 산발령을 행하였다. 조사는 예복을 행제시에 이용하고 사거에서 연거할 때는 구복의 상의하상을 입는다. 이로써 변하지 않은 법이 없고 고치지 않은 제도가 없다. 칭하여 말하기를 개화 유신 문명이라고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조사들이 일본의 복제개혁에 관심을 둔다고는 해도 공적인 영역의 사무가 끝났을 때 집으로 돌아와서는 옛 복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으로 보아 복제개혁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김기수, 김홍집과 마찬가지로 조선후기의 복식관을 통해 일본의 복제개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조사 강문형(1881/1999)과 조사 이현영(1881/1999)의 『문견사건(聞見事件)』에도 언급되고 있고 특히 이현영은 ‘옷옷과 아래옷은 여유가 매우 적고 전모를 쓰고 칠한 가죽을 신는데 이를 서양제의 의복이라고 하지만 고친 이가 드물고 대수 활령이 오히려 한가한 서배에게 많아서 옛 것을 따른다.’고 서술함으로써 복제개혁이 실제로는 그다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조사시찰단은 일본의 복식제도변화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의무가 없었는지 이전의 통신사나 연행사가 남긴 기록과 같은, 자신이 본 바에 대한 감상 수준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투영하여 일본 복식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는데, 일본이 받아들인 양복에 대한 이들의 시각은 조선후기의 복식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국왕의 특명을 받고 조선개혁과 관련된 시찰을 위해 파견된 암행어사 신분이라는 점에서 일본에서 단발하고 양복을 착용하여 하이칼라의 개화신사가 되었다는 것은 추측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여겨진다.

III. 1882년 수신사 朴泳孝의 복식 및 복식관

1. 1882년 특명전권대사 겸 수신사 박영효의 복식

1882년 임오군란의 수습을 위해 박영효가 特命全權大使 겸 수신사의 명을 받아 일본으로 파견되었고, 전권부사 겸 수신부사 金晚植, 종사관 徐光範과 김옥

균, 민영익이 수행원으로 동행하였다. 박영효의 수신사 복명 기록으로는 『使和記略』이 있는데 8월 9일(음력)에 제물포를 출발하여 일본 도착 후 11월 27일(음력) 돌아올 때까지 3개월 동안의 행적을 일자 별로 적고 있다.

박영효의 복식에 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안타깝게도 『使和記略』에는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명칭이나 형태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앞의 수신사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도착 당시에는 전통적인 관복 차림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일본 도착 이후 어느 시점에서 단발에 양복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단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박영효의 사진 <그림 9>이다. 『使和記略』에 언급되고 있는 몇 차례의 사진촬영 기록으로 보아 일본에서 박영효 일행이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알려진 사진은 박영효 사진 한 장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사진 중에서는 가장 먼저 단발하고 양복을 착용한 사진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진의 하단을 자세히 보면 동경 구단자카의 스즈키 사진관(S. Suzuki, Kudanzaka Tokio, Japan)에서 촬영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촬영 일자도 알 수 없지만, 촬영된 사진관과 사진사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使和記略』에 나오는 동경에서의 행적을 추적해 볼 때 음력 9월 15일자의 ‘往寫眞局照影’ 기록으로, 이 날짜에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일본 『朝野新聞』 1882년(明治15) 10월 27일(음력 9월 16일)의 “조선 사절 박영효 부사 김만식 종사관 서광범의 세 사람과 함께 종자 3명은 어제 오전

부터 九段坂에 올라 사진사 嶺木真一의 사진관에 가서 촬영하였다.”라는 기사이다.

이들 세 가지 단서를 종합해 보면, 일본에서 찍은 여러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이 10월 26일(음력 9월 15일)에 촬영한 것이 확실하다. 당시 일본은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력으로 기록하고 있는 박영효의 기록과는 날짜의 차이를 보일 뿐 같은 날로 생각된다. 사진만으로는 당시의 통상예복인 세비로(背廣)로 생각되는데 칼라가 매우 좁고 목 바로 밑에서 여며지는 형태로, 당시의 유행과 일치하는 스타일이다.

사진촬영 일자와 가까운 시기인 11월 3일(양력)은 일왕의 생일인 天長節이었는데, 『使和記略』에는 일본 외무경인 井上으로부터 받은 초대장의 내용이 실려 있다. 초대장에 천장절 축하식에는 ‘대례복’을, 오후의 외무경 연회에는 ‘소례복’을 갖추어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혀 있고, 이에 대해 착용하고 가겠다는 답장이 기술되어 있다(박영효, 1882/1971). 박영효가 어떤 형태의 대례복과 소례복을 착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아직 자료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의 사진과 복장관계의 다른 기록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이다.

첫째, 박영효가 양복의 대례복과 소례복을 마련하여 착용하였을 가능성이다. 위의 사진을 통해 이미 단발하고 양복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조선정부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제작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일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곡배례를 행한 기록으로 보아, 양복 차림이라기 보다는 전통적인 관복 차림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전통적인 관복을 입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양복의 통상예복을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에서 아직까지 대례복, 소례복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의 관복을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의 복식이었던 간에 박영효 일행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당시 국제사회의 복식체계인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양복의 통상예복을 통해 양복 착용의 경험을 하였던 것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왕을 알현하는 자리가 아닌 사적인 외교활동에서 양복형 통상예복을 입은 것도 이전의 수신사들과는 다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



<그림 9> 188년 수신사 박영효 단발 양복 사진
자료출처: 한국사진역사전 도록, p. 40.

해서는 박영효가 수신사이기도 하지만 근대적 외교 개념인 特命全權大使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서구국가들과의 외교활동을 위해 고종으로부터 특명을 위임 받았을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을 수도 있다.

한편, 일본 게이오 대학 후쿠자와 연구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 10>은 앞서 서술한 조사시찰단의 일행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유학중이었던 유길준과 민영익으로 보이는 사람이 1882년 수신사 파견 당시 후쿠자와와의 아들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에서 민영익과 유길준은 갓과 사방관을 쓰고 편복의 포를 착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신사 박영효 일행의 모든 사람들이 양복 착용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본 유학생인 유길준 역시 일본에 머무른 기간까지는 조선의 복식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후쿠자와와 연구센터 소장 유길준, 민영익의 단체사진

자료출처: 慶應義塾 福澤研究センター 제공

2. 수신사 박영효의 복식관

『梅泉野錄』에서 지목하고 있는 갑신의제개혁의 제안자로서 박영효의 복식관을 알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고, 일본의 복식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가는 배 안에서 국가 상징물로서 태극기를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그는 전통적인 조선의 세계관이 아닌 근대적 주권국가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태극기 고안이 그의 자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종의 명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보아(이태진, 2000) 1882년

수신사 복명 당시 박영효의 행적은 조선조정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1880년 수신사 김홍집이 귀국한 후 조선에서는 본격적으로 개화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고종은 이를 위한 참고자료로 중국을 통해 서양 문물 소개서들을 사들이고(이태진, 2000)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과도 조약을 체결하였다(강상규, 2008). 이러한 때 발생한 임오군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된 박영효는 조선이 개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使和記略』을 통해 박영효 일행이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서양 외교관들에게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쳤음을 알 수 있는데, 영국 공사, 미국 공사, 이태리 대리공사, 독일 대리공사, 프랑스 공사, 러시아 임시대리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접촉하였고, 일왕의 생일(天長節), 외무경 만찬에 초대받아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하였다. 이는 앞으로 있을 구미 제국들과의 조약비준에서 조선이 자주독립국이고 문명국임을 알림으로써 조약상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이루어진 활동이었고 이는 당시 조선 정부의 외교방침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교활동을 위해서 양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수신사를 마친 다음 귀국 후 박영효는 서양문물의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1885년(明治18) 1월 20일 『東京日日』에는 갑신정변 이후의 기사이긴 하지만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 박영효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어서 박영효가 ‘일본식 변소를 설계하고, 집안에 욕실을 설치하였으며, 서양안장을 놓은 말을 타고, 양복 착용을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아직 조선에서 의제개혁이 이루어지기 전 조선 내에서 양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큰 모험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온 경험, 특히 단발하고 양복을 착용했던 경험을 토대로 생활양식의 서양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은 나름의 시도였으나 이 당시까지는 조선 내에서 받아들이기엔 시기상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884년 5월의 갑신의제개혁을 이끌어내고 추진하였던 박영효를 비롯한 급진 개화파 정치인들이 갑신정변 직전에 남긴 <그림 11>에는 앞줄 가운데의 박영효를 중심으로 홍영식, 서광범과 뒷줄의 유길준도 모두 양복 차림은 아니다. 오히려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 공사관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고 일본으로 망명길에 오른 뒤 찍은 <그림 12>에서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등은 단발에 양복



<그림 11> 1884년 개화파 단체사진
자료출처: 한국사진역사전 도록, p. 41.



<그림 12> 갑신정변의 주역들
자료출처: 근대외교의 발자취, p. 83.

을 착용하고 있다. 이는 조선 정부의 반역자가 되어 일본으로 망명하기에 앞서 조선의 의관 차림으로는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이루어진 행동으로 여겨진다.

IV. 결 론

개항 이후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조사시찰단은 양복을 착용해 보았고, 양복을 받아들여자는 주장을 한 주역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일본 파견 수신사, 조사시찰단의 복식과 복식관에 대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876년 수신사 김기수, 1880년 수신사 김홍집은 전통적인 조선후기의 복식관을 통해 일본의 복제 개혁을 바라보고자 하였고,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공적인 상황에서는 조선의 관복을, 사적인 상황에서는 조선의 편복을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1881년 파견된 조사시찰단의 경우에는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대체로 조선의 편복 차림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일정보다는 일본의 개화 시책 현장에 대한 조사시찰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사시찰단은 고종의 특명을 받아 일본에 파견된 암행어사 신분으로 단발양복을 몸소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아직까지 양복으로의 복식개혁을 주장할 만큼 복식관의 변화가 생긴 단계는 아니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1882년 임오군란의 해결을 위해 파견된 박영효는 일본에 파견되어 단발하고 양복을 착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이전에 파견된 수신사들, 조사시찰단의 조사들과 구별되는 행동이다. 박영효의 파격적인 복식행동은 개화파라는 개인의 성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조선정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정부가 박영효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영효가 특명전권대사를 겸하였다는 것과 당시 조선이 서구 여러 나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는 외교정책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1884년 박영효를 비롯한 외국 경험자들의 제안, 정부 내 설득과 합의에 의해 기존 복식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실시 가능한 수준의 개혁으로써 갑신외제개혁이 발표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상규. (2008). *19세기 동아시아의 페러다임 변환과 한반도*. 서울: 논형.
- 김진식. (1990). *한국양복100년사*. 서울: 미리내.
- 김장춘. (2008) *세밀한 일러스트와 회귀사진으로 본 근대 조선*. 파주: (주) 살림출판사.
- 부산근대역사관. (2005). *근대외교의 발자취*. 부산: 영신에드.
- 세상 달라졌다. (1972, 3. 14). *조선일보*, p. 4.
- 신혜성, 박선희. (2007). 통신사 기록을 통한 단령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복식*, 57(10), 99-111.
- 유희경. (1977).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 이경미. (2000). 19세기 개항 이후 한일 복식제도 비교. *복식*, 50(8), 149-163.
- 이태진. (2000). *고종시대의 재조명*. 서울: 태학사.
- 이헌영. (1881). *日本開見事件*. 허동현 편 (1999). *朝士視察團關係資料集*, 12. 서울: 國學資料院 영인.
- 이헌영. (1881). *日糕集略*. 한국고전번역원. 자료검색일 2008.

4. 10, 자료출처 <http://www.minchu.or.kr/MAN/index.jsp>
 정옥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서울: 일지사.
 한국사진사연구소 발행. (1998). *한국사진역사전 도록*. 서울: 도서출판 연우.
 국역 고종순종실록. (2005).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자료검색일 2008, 4. 10, 자료출처 <http://www.koreanhistory.or.kr/>
 허동현. (1998a). 조사시찰단(1881)의 일본견문기총람. *사총*, 48, 23-53.
 허동현. (1998b). 1881년 조사시찰단의 명치 일본 사회 풍속 관시찰단의 문건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01, 145-173.
 허동현. (2000). *近代韓日關係史研究*. 서울: 국학자료원.
 홍수경. (1999). *甲申年期 甲午更張期 服制 改革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현. (1864-1910 저술). *梅泉野錄*. 임형택 옮김 (2005). 역주 *梅泉野錄*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姜文馨. (1881). *日本開見事件*. 허동현 (1999). *朝士視察團關係資料集*, 12. 서울: 國學資料院 영인.
 金綺秀. (1876). *日東記游*. 국사편찬위원회편 (1971). *韓國史料叢書第九 修信使記錄 全*. 서울: 탐구당.
 金綺秀. (1876). *修信使日記(卷一)*. 국사편찬위원회편 (1971). *韓國史料叢書第九 修信使記錄 全*. 서울: 탐구당.
 金弘集. (1880). *修信使日記(卷二)*. 국사편찬위원회편 (1971). *韓國史料叢書第九 修信使記錄 全*. 서울: 탐구당.
 東京國立博物館編. (1999). *東京國立博物館所藏 幕末明治期寫眞資料目錄 1*. 東京: (株)國書刊行會
 朴泳孝. (1882). *使和記略*. 국사편찬위원회편 (1971). *韓國史料叢書第九 修信使記錄 全*. 서울: 탐구당.
 朴定陽. (1881). *日本國開見條件*. 허동현 (1999). *朝士視察團關係資料集*, 12. 서울: 國學資料院 영인.
 嚴世永. (1881). *日本開見事件*. 허동현 (1999). *朝士視察團關係資料集*, 12. 서울: 國學資料院 영인.
 東京都寫眞美術館叢書. (2000). *日本寫眞家事典*. 東京: 淡交社. 雜報. (明治15, 10, 27). *朝野新聞*, p. 1.
 朝鮮修信使來朝. (明治9, 5, 30). *東京曙*. 中山泰昌 編著 (昭和57). *新聞集成明治編年史*, 6. 東京: 本邦書籍.
 朝鮮修信使顔ふれ. (明治9, 5, 30). *東京日日*. 中山泰昌 編著 (昭和57). *新聞集成明治編年史*, 2. 東京: 本邦書籍.
 朴泳孝王位覬兪見. (明治18, 1, 20). *東京日日*. 中山泰昌 編著. (昭和57). *新聞集成明治編年史*, 2. 東京: 本邦書籍.